

***예배시 마스크 착용관련 안내:** 주정부의 종교시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면역이 형성된 분들에 한해서 마스크 착용여부는 성도 각자가 선택(Optional)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 여전도회 친교 섬김: 가을을 맞이하여 여전도회가 10월 24일 주일2부예배후에 친교 음식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성도의 교제>

방문: 문형주(김혜원) 집사님, 김남준 성도님(김대봉 집사님 인도)

<10월의 기도제목>

*환우들의 회복: 박재규, Rachel Varcoe, 정옥례, 황교회.

<Sunday School 주일학교> 믿음으로 콩콩콩 42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친구"

목사 고현권 (담임목회)

목사 김인광 (행정/EM/Youth/주일학교/방송)

구본석
권영제
김길수
이원중

오전 9시		
오전 10시30분		인도: 고현권 목사
환영 <i>Welcome</i>		인도자 <i>Officiant</i>
▲영광송 <i>Doxology</i>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다같이 <i>Altogether</i>
▲묵도 <i>Invocation</i>	(롬1:16-17) <i>Romans1:16-17</i>	인도자 <i>Officiant</i>
▲신앙고백 <i>Confession of Faith</i>	(사도신경) <i>The Apostles' Creed</i>	다같이 <i>Altogether</i>
▲찬송 <i>Hymn</i>	470장 (새413장)	다같이 <i>Altogether</i>
기도 <i>Prayer</i>		심동철 장로 <i>Elder Dong Chuel Shim</i>
봉헌 <i>Offering</i>	여성중창 (구본숙, 송옥연, 심무임, 조연희)	다같이 <i>Altogether</i>
봉헌기도 <i>Prayer of Offering</i>		고현권 목사 <i>Rev. Hyun Ko</i>
성경봉독 <i>Scripture Reading</i>	약 5:13 <i>James 5:13</i>	인도자 <i>Officiant</i>
설교 <i>Sermon</i>	"기도와 찬송의 능력"	고현권 목사 <i>Rev. Hyun Ko</i>
광고 <i>Announcement</i>		인도자 <i>Officiant</i>
▲찬송 <i>Hymn</i>	484장 (새365장)	다같이 <i>Altogether</i>
▲축도 <i>Benediction</i>		고현권 목사 <i>Rev. Hyun Ko</i>

▲표에는 일어 서시기 바랍니다.

- English Service "Being a Friend in Faith(4)" Rev. Inky Kim
Acts 9:27
- 새벽 기도회 출33:1-36:7 고현권 목사
- 수요 예배 열왕기상 강해(2) 고현권 목사
"다윗의 유언"
왕상2:1-12절

본질과 비본질

고현권 목사

김대봉 집사님의 인도로 출석하게 된 유흥기(유희숙) 성도님이 미시간에서 오랫동안 이민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고 이곳으로 이사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미국에 첫발을 내딛고 3년을 살면서 큰 딸을 얻은 곳이 미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면서 공부했던 그랜드 래피즈에는 고(故) 옥한흠 목사가님 칼빈신학교에 공부하러 오시면서 개척된 그랜드 래피즈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면서 장로님으로 들은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옥목사님이 떠나시고 얼마 후에 다른 목사가님이 유학을 오셔서 목회를 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날 오후에 목사님과 함께 심방을 갔다가 허기가 저서 근처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장로님,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됩니다. 제5계명 위반입니다." 이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크레딧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제는 내일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자 목사님이 고개를 고덕이면서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게 식사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웃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주일 성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저 돈 안 쓰고 아무 일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잘 지킨 것인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음식문제와 더불어 로마교회에 일어난 또 하나의 갈등거리가 날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바울이 잘 정리해줍니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찌니라"(롬14:5)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안식일을 제일 중요한 날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일하지 않고 쉬면서 안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로마본토 출신 성도들은 모든 날이 다 똑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생각 또한 존중하였습니다. 바울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문제, 날을 지키는 문제는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서로 간에 각자의 생각과 결정을 상호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주제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주시십시오.

10월 행사 및 모임

10/24 정기 당회
10/31 정기 제직회, Holy Win 교육부행사

성경공부 안내

새가족반 (주일)TBA
목요 여성 성경공부 (목)TBA
일대일 제자 양육자반 개인별 지정 시간
성경 통독반 (주일)TBA
화요 성경공부 (화)TBA
목요 성경공부 (목)TBA
Youth 금요성경공부 (금)오후 8:30
(google meet)

예배 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EM/Youth 예배 오전 10:40
어린이 예배 오전 10:40
(영상)수요 예배 오후 8:00
(영상)새벽 기도(월-금) 오전 5:30
(영상)(토) 오전 6:00

주일 예배 기도	금주	내주
	심동철 장로	이원종 장로
현화	김희자	최영옥

매일 성경읽기 표

날자	요일	본문	날자	요일	본문
10/18	월	출 33:12-23	10/21	목	출 35:1-19
10/19	화	출 34:1-17	10/22	금	출 35:20-29
10/20	수	출 34:18-35	10/23	토	출 35:30-36:7

Youth/EM Daily Bible Readings

10/18	Mon.	Acts 9:1-10
10/19	Tue.	Acts 9:11-20
10/20	Wed.	Acts 9:21-30
10/21	Thurs.	Acts 9:31-40
10/22	Fri.	Acts 9:41-43

헌금 통계

주일,감사,십일조, 선교,기타 헌금	TBA	지정 헌금 현 화	TBA	합계	TBA
---------------------	-----	--------------	-----	----	-----